

# 문화통계와 출판통계 바르게 읽기

## 「통계로 본 우리문화」 「문화예술통계자료집 1989」를 중심으로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통계를 읽는다는 일에 우리는 대단히 익숙치 않다. 전문영역에 있어서도 경제분야의 통계는 그 읽기가 숙달돼 있지만, 교통이나 환경통계쯤 되면 역시 보편적으로 통계읽기의 낮은 차원은 일반시민들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문화통계 분야에 이르면 문화전문가들마저도 그 관심수준은 일반과의 차이조차 없어진다. 좀 공격적으로 말하자면 통계에 관한 한 문맹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만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또 그 계량에 의해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개념으로 보면 경제행위도 문화행위이듯이, 보다 본질적인 문화행위들이 그 기준만 정한다면 양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리 없다. 따라서 문화통계에 관한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파악의 중요한 척도로 인정돼 왔고 또 오늘에는 유네스코의 문화지표 체계화작업을 통해서 더욱 그 효율과 효용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도 문화적 통계들이 있어왔다. 대단히 기초적 항목들이긴 하지만, 경제기획원이 간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지표」 속에 문화항목의 설정이 이루어진 지도 어언 6년은 된다. 그러나 너무 기초적이고 외형적인 항목들에 제한돼 있어서 이 자료들로는 우리의 문화실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거의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맹점을 가져왔다.

예컨대 영화영역을 하나 보자. 우리의 영화통계는 제작편수, 평균제작비, 수입실적, 극장입장객수, 그 외형적 정도의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영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네스코가 표준화하고 있는 영화부분의 통계항목들에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들이 나와야 할 것임을 권고한다. 전부 옮길 수는 없으나 몇 항목만 드러내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생산과 창작에서 영화의 주제별 ②전달과 보급에서 영화관 좌석 및 유형별, 영화상영에서 주제별 · 언어별 · 상영시간별 ③수용과 소비에서 선호도에 의한 만족도, 더 좋은 영화에 대한 요구 주제별 ④보존과 기록에서 영화 보관 편수, 영화 재생 편수, 재생목적 ⑤참여에서 영화동호인 단체, 영화에 소비되는 총시간, 영화관람자의 계층별 연령별 등이다.

이 항목들의 논의를 보면 그래도 얼마쯤

문화통계가 무엇을 찾아내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문화통계가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간행한 두권의 통계자료집 「통계로 본 우리문화」와 「문화예술통계자료집 1989」는 크게 반길 만한 문화통계영역의 첫 작업일 수 있다.

### 통계자료로 읽는 우리의 문화수준

170면 규모의 「통계로 본 우리문화」는 120개 항목의 외형적 파악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초보적 구성이다. 그럼에도 이만한 자료를 함께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오늘의 우리 문화자료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각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화예술통계자료집」은 보다 본격적이다. 4×6배판 350면의 이 자료집은 문화와 연관된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읽을 수 있는 통계들은 일단 현존하는 것으로서는 거의 전부를 망라했다. 따라서 예술영역들 자료보다 우편물 유통량이나 자연보호지역 면적, 유학생 교류 및 장학금 수혜율에 이르는 문화적 영역이 어디에까지 확대되는 것인가를 표현하는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시야의 확대만으로도 이 통계자료집은 새로운 시야 넓히기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이 두 통계자료집 자체를 해제하려 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해제하려면 문화지표체계를 먼저 해제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의 문화통계 작업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논평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지면이 적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나는 이 두 통계집을 통해서 우선 우리의 출판통계가 어떤 수준에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접근되어야 할 것인가만을 반성적으로 언급해 두려한다.

「통계로 본 우리문화」에 들어있는 출판통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정기간행물 연도별 추이
- ②출판사 · 인쇄소 지역별 분포
- ③최근 5년간 전국 출판사수 추이
- ④일반도서 발행종수 종별 현황

「문화예술통계자료집」에는 물론 조금 더 많은 항목들이 있다.

- ⑤연도별 잡지발간 종수
- ⑥내용별 잡지 발간종수

### 통계를 읽는다는 일에 우리는

대단히 익숙치 않다. 그것이 문화통계일

경우에는 거의 문맹에 가깝다.

그러나, 문화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계량화가 가능하다. 문화통계는

문화현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이 두권의 통계자료집이

갖는 의미는 크다.

- ⑦신문 · 방송사 발행 잡지종수
- ⑧잡지구독률 및 구독잡지 종류
- ⑨도서총발행부수
- ⑩보유장서수 · 연간독서권수 · 주로읽는 책의 종류
- ⑪서점수
- ⑫도서관수
- ⑬도서관 열람석수 및 인구 10만명당 열람석수
- ⑭도서관 장서수 및 인구 10만명당 장서수
- ⑮도서관 연간이용자수 및 인구 10만명당 이용자수
- ⑯도서관 연간 이용책수 및 인구 10만명당 이용책수
- ⑰도서관 운영인력
- ⑱도서관 연간예산액

이 항목들만 보아도 우선 우리의 출판통계가 얼마나 제한된 좁은 시야의 항목들로만 구성돼 있는가를 알 수 있다. ⑩~⑱에 이르는 도서관 항목만큼 출판의 항목은 발전돼 있지 않음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출판에 있어서는 실은 발행수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이용수이다. 실제 판매부수가 자료로 더 필요하고 또 출판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연간예산이나 운영인력에 관한 통계들이다.

뿐만 아니라 잡지에서도 초보적으로는 시행하고 있는 실제내용별 통계가 접근이 돼야 한다. 도서관 10진분류법에 의한 단순통계는 그 실질적 출판내용을 점검하는 데에는 어떤 암시도 주기가 어렵다.

예컨대 「논어」는 지금 어느 분류에 들어가 있는가. 동양철학서이기도 하고 사상교양서이기도 하고 단순히 번역서일 수도 있고 또 아동

교양목록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만화로 그린 논어는 당연히 만화이고 소설로 쓴 논어는 또 문학일 수밖에 없고 에세이스트가 쓴 논어는 또 수필집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논어의 학문적 접근서와 논어의 교양적 보급서이다. 이럴 경우 어떤 기준과 체계로 출판내용의 통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자료들 현실로서는 주문조차 할 수 없는 과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편 전체량 통계에서만도 문제는 상존한다. 우리의 통계는 언제나 학습참고서와 아동도서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를 보도할 때 이종의 70%가 학습참고서와 아동서라는 단서를 단다. 그러나 통계는 통계치수로서 이미지를 결정한다. 70%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명기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4만종이 넘는 출판의 외형적 위력이고 또 이에 따른 성장과 감소의 추세이다. 그러니 실제 출판량이 줄고 있어도 참고서의 증가종수를 통해서 여전히 출판은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사회적으로 고착해간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미지도 출판대국으로 고정되고 따라서 저작권료에 대한 수혜를 얻어 내기는 더 어렵게 되고 있다. 그러나 이만한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허장성세가 오히려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끔은 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실질현장에서의 출판은 아직도 특별한 문화적 지원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 출판통계가 드러내는 虛와 實

이러한 현실적 입장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판통계의 실질적 항목들의 선별이다. 내가 이번 자료들에서 출판통계로 더 잘 쓰여야 하겠다고 생각한 항목들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다.

첫째, 「한국통계연감 1988」에서 옮겨진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이 통계속에는 전도시 전가구별 평균으로 교과서 · 참고서 구입비 3943원, 일간신문 · 잡지 · 도서구입비 2152원이라는 수치가 있다. 연간 7만2천원꼴이 인쇄물의 총구입비인데 이 중 1만5천원이 도서구입비라는 수치이고 또 4만8천원에 이르는 교과서 · 참고서代도 교양비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세계 제8위로 표시되는 4만종의 출판량이 실제로 우리문

화에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것인가를 나는 결코 말하기 싫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서관의 貸書라는 개념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니 둘째로 또 다른 자료를 보자. 도서관 통계자료의 연간이용자수와 연간 이용책수의 수치를 함께 묶으면 1987년 전국도서관 이용자수는 1억2천6백만명인데 이용책수는 5천4백만권이라는 구조가 된다. 두사람당 한권도 책을 보지 않았다는 수치이다. 그리고 이 이용자수의 내용은 물론 조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부분이 자기 참고서를 들고 들어가 진학시험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수치속에서는 또 우리의 출판물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문제가 있다. 도서관에서 그래도 1억권이 유통되고 있지 않느냐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 1억권의 실질내용은 또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간책, 덩핑으로 만들어진 책, 이사람저사람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 줄도 긋고 낙서도 해놓은 책들이 더 많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통계들로 우리를 설명하고, 또 이 도서관통계마저도 그나마 출판통계보다는 좀 나은 통계로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 양극창고비와 같은 크기의 출판시장

「출판연감」의 통계에는 그래도 「일반도서 평균부수·가격·면수」라는 항목이 있다. 88년도 수치로 총 발행부수 1억6천7백25만부(초·중·고·대학 포함) 평균가격은 5043원이나 지난 8천3백62억원 시장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중 역시 참고서와 아동도서를 빼면 5천4백86만부에 6147원이 되니까 3천3백72억원 시장밖에는 되지 않는다. 3천억원 시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남은 쌀을 보관하는 연간 양곡창고비가 바로 3천억원이다. 쌀창고 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출판물 외형이고 또 이 외형이 결코 판매외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비디오 대여점에 공급된 비디오테이프 외형만 해도 3백20억이고 또 이것은 시중에서 복사되어 1천억원 시장을 만들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지표체계화작업을 과제로 갖고 있다. 이번에 나온 자료집들도 그 작업의 첫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나는 이 작업을 계기로 출판통계의 실질적 세분항목

들과 그 조사작업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현재 진흥원연구에서 1차지표항목으로 설정된 것 역시 대단히 대항목적이다. 연구작업에서 제안됐던 내용과 이번 통계자료집에 제시된 내용과도 또 다른데 그 설정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표체계 연구서에서의 제안항목〉

서적 : 출판사수 지역별(각 시·도) 집계  
도서발행부수

내용별 ①철학 ②종교 ③사회과학  
④순수과학 ⑤기술과학  
⑥예술 ⑦어학 ⑧문학  
⑨아동 ⑩학습참고서  
⑪이서 ⑫복사판

도서용지 생산량  
전국서점수 ①유통단계별-도매·소매·총판  
별

〈문화예술통계자료집에 제시된  
문화지표체계(수자는 코드명)〉

X. 대중매체

2-4 서적

2-4-1 출판사수  
2-4-2 도서총발행부수  
2-4-3 도서용지생산량  
2-4-4 전국서점수

이 항목들을 보면 역시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기도 더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출판문화영역의 책임이다. 여타분야들의 항목은 이보다 더 잘 체계화되어 있다.

사회지표 및 문화지표들의 용도는 무엇보다 정책입안과 발전계획수립의 근거가 된다는데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설정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용 통계의 실질화가 이 중요성의 핵심을 이룬다. 자료를 만들고 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까지 모두가 해당영역의 책무이다. 출판의 발전과 그 발전의 지원을 출판계가 원하고 있는 것이라면 출판통계의 심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는 단지 두권의 통계자료집이 나온 것을 계기로 이나마 자료의 부분적 읽어보기와 그 필요성만을 우선 제기해 두는 것이다.

#### 저작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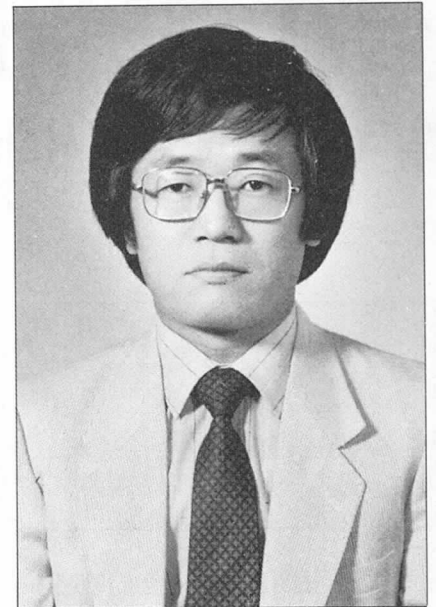
## 언어와 실재, 혹은 본질

「필연성」

정대현

이화여대 교수·철학

「필연성」을 실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유명론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전통 속에서 실재적 필연성의 구성을 위한 분석철학적 접근은 「현상의 본질의 발견」을 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우연밖에 없는가? 진정 그렇다는 것이다. 필연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로서 제시된다. 법칙이나 인과라는 것이 자연현상의 여러 관계들을 연결하여 주는 우주적 시멘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들이 필연적인 것으로 관찰되지는 않는다. 법률이나 사회제도가 인간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지만 이들은 도대체 그 연원부터가 자의적이다.

그렇다면 필연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언어 안에서만 언급될 수 있는 唯名論의 개념으로 제안된다. 필연이란 전형적으로 「총각은 남자이다」라는 문장과 같은 표현들이 갖는 성질이다. 필연에 대한 이러한 유명론적 해석은 강한 대변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첫째 종류의 대변자는 경험주의 전통에서 찾아진다. D. 흄이 필연성을 심리화한 이후 이에 대한 실제적 해석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B. 러셀에게서 이것은 분석판단의 성질일 뿐이었고 W.V.O. 콰인에게선 말하는 양식으로 주장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20세기의 첫 80년을 지배한 주류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철학은 A. 타르스키의 진리의 언어에의 상대화에 의하여 더 강화되었고 여러가지 논의들에 의하여 상대주의의 여러가지 형태들로 이어졌으며 T. 쿤의 「이론들은 비교될 수 없다」라는 명제까지 제안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80년대에 들어 제기된 하나의 문제에서 시사된다. L. 비트겐슈타인이 발견한 「규칙을 따른다」라는 것의 문제를 S. 크립키가 철학적 역할로 발전시킨 것이다.

임의의 행위나 사건도 어떤 규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사실이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역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것은 실재적 필연성에 대한 의문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실재적 필연성의 구성을 위한 문제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필연성 또는 가능성이라는 양상언어가 어떻게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름은 이론이 다르고 세계가 달라질 때 동일한 대상을 표시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은 어떻게 평가되고 선택될 수 있는가? 상대역이론은 문제가 없는가? 규칙의 개념이 어떤 고정성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반사실문은 실재적 필연성 이외의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가? 가능세계라는 요청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명되고 설명될 수만 있다면, 실재적 필연성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분석철학 전통에서 부끄러웠던 본질주의라는 하나의 형이상학적 입장이 의연한 영역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과와 법칙이라는 것도 종래의 확률이나 연상모델에 의한 설명보다는 실제적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과학의 과제도 「더 나은 이론의 구성」에서 「현상의 본질의 발견」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